

## OC-II-3. Reconstruction of unmovable, keratinized gingiva

Min-Soo Kim\*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 연구배경

정상적인 치주 조직으로서 부착 치은은 치아에 중요한 요소로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치주 조직을 보호하며 구강 위생 조절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예전의 연구들은 필요한 부착 치은의 폭경에 대해 1mm부터 3-4mm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고 하였으나 Wennström과 Lindhe(1983)에 따르면, 구강 위생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부착 치은의 존재가 치아의 예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최근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골유도 재생술등이 널리 사용되며, 이 경우 연조직의 일차 봉합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골막 절개를 시행하여 연조직의 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는 비심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최근에는 Rotated palatal flap, VIP connective tissue graft등의 복잡한 술식이 보고되고 있지만 여러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본 증례 발표는 free gingival graft와 acellular dermal matrix를 이용하여 각화 치은을 형성하는 술식에 대해 평가해보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 연구재료 및 방법

#### Case 1

씹을 때 오른쪽 어금니가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한 56세 여환의 임상및 방사선 구강검사 결과 #46 치아의 이차 우식과 #44=#46의 만성 치주염으로 #44=#46 bridge 제거후 두 치아 모두 발거하였다. 추후 #45, 46에 임플란트 식립후 각화 치은 형성을 위해 Free gingival graft를 시행하였다.

#### Case 2

왼쪽 아래 이가 씹을 때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한 50세 여환의 임상및 방사선 구강검사 소견 상 #37 치아의 만성 치주염으로 진단되어 발거하였다. 그 후 각화치은을 형성하기 위해 인공 진피를 이식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 하였다.

### 연구 결과

두 개의 증례 모두 치료후 Healing의 장애나 기능적 혹은 심미적인 합병증은 발병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이후로도 좀 더 장기적인 예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본 증례에서 살펴본 결과 Free gingival graft와 Acellular dermal matrix 를 사용한 증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술 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치주와 임플란트 영역에서의 부착치은의 획득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으나 각화된 저작점막을 형성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치아주위 조직 또는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기능적으로 안정된 부위를 형성해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구강 위생 조절을 용이하게 하여 환자 스스로가 치주조직 또는 임플란트 주위조직을 건전하게 유지시키는데 많은 순작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